

一人一技의 具體的 方案

國會議員
金 基 衡

西紀 1800年代의 初期에 茶山 丁若鏞先生은 . 技藝論 著述에서 『우리는 漠然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옛날에 배워온 그 技術만으로 滿足하게 여기고 있다』고 當代의 沈滯하고 保守的인 生産體制를 痛駁하고 있다.

20世紀의 科學時代에 사는 우리가 새삼스럽게 「1人1技」라는 標語를 浮刻시키는 所以는 어디에 있을까? 從來에도 1人1技 教育方針은 서 있었지만 急進하는 科學技術 世界와 國際情勢에 對應하기에는 너무 微溫的인 面도 있었고 形式的이어서 實質的 效果가 적고 直接 生産體系와도 連結이 잘 안되어 있어 茶山의 卍지람을 다시 듣게 되는 狀況이었기에 10月 維新을 契機로 一大 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0月 維新은 온 國民과 온 國家活動의 能率化, 組織化, 總力化를 通하여 國力培養에 이바지함에 있음으로 科學技術 政策도 그 對象의 焦點이 되고 國民 各自가 적어도 한개 以上の 技術이나 기능을 體得한다는 從來의 漠然한 概念도 10月 維新을 契機로 反省되고 새로운 理念아래에 整理되어 教育의 概念에서 實踐的 概念으로 昇華되고 能率性 있게 組織化되고 온 國民이 全國土에서 晝夜를 가리지 않고 實踐하는 政策으로 再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現代 文明의 中樞는 科學技術의 發展이며 新科學 新技術 新知識情報를 利用 못하고 生産 못하는 나라는 現代 一流 文明 國家로서의 資格 喪失이며 따라서 先進國家들은 GNP의 2% 以上을 每年 科學技術 研究開發에 投資하고 教育의 擴充에 熱中하고 있는 것이다. 科學技術의 比重과 投資가 적은 過去에는 科學技術은 科學자에게 一任하면 된다는 時節도 있었으나 現代와 같이 數百億弗의 投資와 數十萬名의 科學技術 關係者를 動員하여야 할 巨大 科學時代에 있어서는 原子武器 誘導彈같은 致命的武器가 安保를 威脅하고 産業貿易 競爭이 激化된 時代에 있어서는 科學技術 政策이 國家首腦部의 重大 關心이 되며 汎國民의 問題가 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20世紀의 主要 特徵은 科學技術의 擡頭였으며 國防 經濟文化 등의 國家 國民活動에 있어서 技術格差는 經濟發展의 格差요 後進國과 先進國을 區分하는 里程碑가 되었다. 國土의 크기나 資源 多寡의 問題가 아니라 科學技術이 잘 振興되면 國土가 적고 蓄積 資源이 없는 나라라도 잘 살 수 있다는 事實이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科學技術 政策의 目標은 “바나-르”가 말했듯이 科學技術 振興을 通하여 生産自體의 技術의 改良, 研究와 開發, 基礎 研究, 環境 改善 등의 모든 것을 結合시키는 最善의 方法을 찾아내는데 있다. 最小의 經費로 最大의 成果를 내



러는 經濟 法則과의 類似點을 科學技術 振興의 原則에서 發見하는 것이다.

科學技術의 發達도 그 나라 政府와 國民의 決心과 올바른 努力投資와 施設, 効率的인 科學 教育의 實踐 與否 技術導入 活用 與否等에 關連되나 能率化, 組織化, 總力化가 『最善의 方法』의 內容인 것이며, 國力培養의 最適化過程을 意味하는 것이다.

『1人 1技』의 새로운 意義는 漠然한 教養 概念을 超越하여 國力 培養에의 最適化 過程으로 把握됨으로써 實踐 概念化된다.

現代의 技術은 外貌上으로는 極히 複雜하고 多端하게 보이나 分析 分離해 보면 大部分이 簡單한 單純 技術의 集合體인 것이다. 따라서 部分 部分에 熟練한 技能工만 養成되면 그 綜合化로 複雜한 生産도 能히 可能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所謂 分業의 原則이며 現代 文明構築의 基本 原理인 것이니 『1人 1技』에서도 分業概念中의 한 技術式을 習得한다면 極히 短時日內에 生産工場까지 稼動할 수 있는 能力을 學園訓練所에서 가질 수 있고 農場經營도 可能할 것이며 또 한 部分을 專攻함으로써 技術의 深化가 可能할 것이다. 現在와 같이 實踐에서 먼 人文教育을 받는 學徒들도 比較的 容易하게 分業概念으로 一人一技를 習得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볼트」 하나를 精密하게 多量하는 技能을 鍊磨하여 世界一流水準에 進出할 수 있고 機械設計를 習得하여 國際技能大會에 進出할 수 있는 것도 現代가 分業의 時代라는 한 象徴인 것이다.

最近 百億弗 輸出目標達成과 더불어 熟練工 不足問題가 擡頭되고 있다. 工場側에서는 從前에는 職工모집에 對一 競争이 消滅하고 겨우 1對 1 程度가 되었고 採用된 人員도 定量的으로 事物을 取扱하는 能力이 弱하고 技術系도 質的으로 弱하여 生産에 支障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은 問題는 人力이 不足한 것 보다는 需要增加에 따라 地域의 人力偏在의 是正 一人一技 教育의 徹底化로 短時日內에 解決可能할 수 있는 問題라고 본다.

一人一技의 具體的 方案의 方向은 以上 略述한 背景에서 浮刻된다.

方法論的으로는 平易한 것 卑近한 것부터 正確하게 徹底하게 學習하는 習性을 訓練하면서 分業의 原理를 살려 階段의 努力을 다하여 高級技術과 科學을 消化 開拓하여 創造와 發明을 誘導하는 過程을 밟아야 될 것이다.

教育面에서는 暗記爲主, 入試爲主, 點數爲主의 弊害를 一掃하고 理解와 推理力을 涵養하고 不撓不屈의 굳은 意志로 問題를 解決하는 能力附與가 民族中興과 國力培養의 緊始不可缺한 要素가 되는 것이다. 產學協同을 強化하여 空理空論에 그치지 않고 生産과 需要에 直結시켜 輸出增大에의 貢獻度를 높여야 할 것이다. 一人一技의 根本은 科學的으로 觀察 分析 綜合하는 學習 實習이 必要하므로 理論과 實技의 優秀한 教師를 確保하고

實驗實習 施設과 充分한 運營管理費와 情報提供이 所要됨으로 全國的으로 老대한 投資가 必要하게 된다.

이 機會에 強調하고 싶은 것은 政府나 其他機關이 다 準備해 줄 때까지는 一人一技나 科學化를 못하겠다는 態度는 極히 消極的인 姿勢인 것이다. 只今부터 約 20年前 英國의 “화라테-”가 「춧불의 科學」이라는 大衆科學 講演을 한 記錄이나마 있는것을 보면 우리 卑近한 곳에 있는 춧불하나 가지고 얼마나 科學과 技術의 原理를 배울 수 있는지 새삼스러이 驚탄을 禁치 못하는바이다. 要는 環境의 不備를 나무라기 前에 내 스스로 與件을 助成하고 內在하는 科學의 마음을 發榮培養하는 基本精神이 아쉬우며 이런 意味에서 一人一技運動은 새마을運動과 그 軌道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自立 自主 協同의 精神은 科學하는者의 基本精神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人一技 發育은 學園에서만 아니라 家庭生活에서 農場工場에서 職場에서 指導者와 自己 스스로의 決心으로 할 수 있는 길이며 一時教育이 아니라 急進하는 科學技術의 進歩에 對應하여 生涯教育으로 轉換되고 晝夜없이 連續性있는 訓練課程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科學 技術 生産에 關한 關心이 汎國民에게 번지고 生産하는 者 科學者 技術者가 優待받는 社會가 形成되고 學會와 技術세미나가 권위와 隆盛을 되찾을 것이요 汎國民의 科學化가 實踐段階에 들어갈 것이다.

1980年代까지의 至上課題는 百億 \$ 輸出 目標達成과 國力培養에 있음으로 一人一技 訓練의 短期對策은 直接間接으로 輸出에 所要되는 모든 技術을 分析 整理하여 一人一技型으로 習得, 熟練시켜 輸出 生産交易體制에 直結시켜 輸出의 總力化의 一環을 構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實 一邊倒의 在來農業은 技術農業으로 多角的 協同農業 새마을 工業으로 一人一技 普及과 同時에 轉向될 것이며 山林管理도 科學化 管理가 됨으로 울창한 山林으로 發展될 것이며 重工業化 製品의 多角化 商品의 高級化 輸出市場의 분산 原資材 國產化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結論으로 一人一技는 人力開發과 教育의 核心이며 一人一技의 올바른 具體的 實踐이 國力培養과 民族中興의 原動力이 된다는 事實을 強調하고 싶다.

